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5em;">새고려신문</div>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2년 9월 30일(금) (윤력 9월 5일) Пятница 30 сентября 2022г. № 38 (1200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10월 1일은 국제 노인의 날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 어르신들의 모습.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헤르손과 자포로지예주 러시아 합병 지지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헤르손주와 자포로지예주에서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국민투표가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되었다.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자포로지예주 3개 지역에서 투표자 90% 이상이 러시아와 합병을 찬성했고, 헤르손 지역에서 87%가 찬성했다.

러시아와 합병 문제는 오는 10월 4일 러시아 연방 의회 상원(연방평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다음주 발표

드디어 2022년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가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 출장소에 넘겨졌다. 출장소 측에 따르면 이번 선정자 명단은 10월 4일 출장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장소는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수요조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석유·가스 포럼 개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2022년 사할린의 석유와 가스) 극동 에너지포럼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다. 이에 연방 및 사할린 각 지역의 대표들과 과학기술단체의 지도자들, 국내 및 국제 석유·가스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에너지 산업의 전환 전략과 적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사할린한인문제로 학술회 열어

10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한인문제, 해결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열린다. 주최측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할린한인단체다. 컨퍼런스에는 한국의 최경옥 법학교수, 박봉수 박사 등 참가하고 사할린주한인협회 측을 이채인 씨가 대표한다. 컨퍼런스 앞두고 9월 30일 원탁모임이 소집된다고 전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민속문화센터 사업 공개

9월 30일(금)에 야쿠치야, 카렐리아, 사할린 북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마가단주와 스페르들롭스크주의 대표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모여 북방, 시베리아, 러시아 연방 극동 지역의 소수민족 원주민 민속문화센터 사업의 지역 간 공개대회를 하는 가운데 주 민속예술센터에서 이들 소수민족의 회화예술과 수공예품 전람회, 활동교실, 갈라콘서트를 열고, 원탁회의에서는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문화의 보존과 부흥, 발전 문제를 논의한다.

친애하는 여러분!

10월 1일 국제 노인의 날을 맞아 사할린주의 고령세대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공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였고,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사할린이 살기 편안한 곳이 되도록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을 돌볼 차례이며, 이것은 저의 업무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매해 전 지역에서 더욱더 많은 노인들이 심층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 장수'기획이 잘 추진되고 있어 이 기획 덕분에 사할린과 쿠릴의 고령세대 분들이 체육문화에 참여하고, 다양한 행사들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계신 분들과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범적 구역>이란 새로운 기획을 통해 가정 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의 질을 현저하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사람을 배려하고, 개별적으로 이분들과 소통하며, 심리적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은 사할린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의 고령세대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돌보고,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며, 정신의 활력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본보기로 삼겠습니다. 여러분의 강건함과 장수를 기원하며, 항상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돌보는 사람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국제 노인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 주두마 제8대 의원 첫 총회

지난 9월 26일(월) 제8대 사할린 주두마 의원 첫 회의가 열렸다.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대표들은 이날 주두마 새 의원들에게 의원증명서를 수여했다. 제8대 주두마 의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이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게오르기 카를로브 국가두마 의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조직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제8대 의원들은 우선 주두마의 새 의장을 선출했다. 의장에 옐레나 카시야노와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는데 카시야노와 의원은 이전까지 오하 시장으로 1년 반을 역임했으며, 그 전에는 10년간 사할린주 사회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부의장에 최고령자 의원인 위탈리 고밀렙스키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사실 의장과 부의장직에 다른 후보는 없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 문제를 해결할 6개 전문위원회 위원을 승인했다. 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국가 건설, 규제 및 자치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나탈리아 코르슈노와(제7대 의원에서도 같은 위원장을 맡았음)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은 파벨

아쉬르민과 알렉세이 플로트니코브가 선출됐다.

예산 및 세금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나탈리아 자하르추크, 부위원장은 알렉산드르 라돔스키와 로만 웨제네예브가 선출됐다.

경제개발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알렉산드르 샤리폴린, 부위원장은 비골로브 유리과 임 유리가 선출됐다.

사회정책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알렉산드르 볼로트니코브, 부위원장은 세르게이 본다레브와 바딤 뿌리친스키가 선출.

스포츠, 관광 및 청소년 정책 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알렉산드르 그린베르그, 부위원장은 드미트리 브도원, 아르쭘 크루글리크가 선출.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이용 위원회 위원장은 예브게니 로틴, 부위원장은 위탈리 바라노브와 최 유리가 맡았다.

사할린 주두마에서 의원 19명이 장기 전문직으로 직무를 이행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규정에 따르면 주두마 의원 총 28명 중 20명 이하만이 장기 전문직으로 일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제8대 주두마에 19명의 의원이 장기 전문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는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새고려신문

2022년 하반기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6루블리 92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언어치료사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을까?'

유즈노사할린스크 '가르모니아'유치원 김 나탈리아 선생



9월 27일은 러시아에서 유치원 생 교육 분야 근로자의 날로 기념한다. 이날 축하를 받을 만한 사람 중 한 분은 김 나탈리아 산무노브나(1970년생)다. 김 나탈리아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가르모니아(하모니, 조화) 제18 유치원에서 언어치료사로 29년차 경력을 갖고 활약하고 있다.

그녀가 언어치료학에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14살 때였다. 나탈리아와 그의 하나뿐인 여동생과는 8년 차이이다. 그 당시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이 몇 가지 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언어치료가 필요했다. 이걸 유치원 소속 언어치료사가 검토한 결과인데 유치원에서 언어수업을 했는데 그에게 꼭 따르는 숙제가 있었다. 보통 학부모들이 공책에 쓰여진 과제를 아이와 함께 해야 하는데 이 두 자매에게서 부모님은 언제나 무척 바빴다. 어머니는 영어 선생이라 워낙 하는 수업이 많아서 학교에서 늦게 퇴근하셨고 아버지는 자주 출장을 나가셨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동생의 언어치료와 관련 과제는 나탈리아가 도맡았다. 어휘를 늘리고, 혀의 운동 연습, 그림 그리는 것, 단순한 문장을 확대하는 것 등 동생과 함께 하면서 동생이 언어장애를 빨리 극복하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이 직업의 매력에 빠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언어재활치료 전문가가 되고자 했다. 그런데 언어치료사와 언어장애치료사 전공이 있는 대학은 1980년대 후반 당시 사할린에는 아예 없었고 러시아 대도시에서만 있었다. 그가 중학교를 졸업한 해, 마침 하바롭스크 국립 사범대학에서 언어재활치료학과에서 언어장애치료교육과 정신지체 장

애아를 위한 교육학을 동시 전공할 수 있었다. 정신지체 장애아 교육은 발달장애재활학의 한 부분이다.

김 나탈리아 언어치료사에 따르면 공부하기가 정말 재미있었다고 한다. 배울 것은 아주 많았다. 이들에게 정신지체 장애아 언어치료교육을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언어치료, 교육학 교수 등 외에 거의 절반의 교수진은 하바롭스크 의대 선생이었다.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을 충분히 받았고 특히 심리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탈리아는 하바롭스크 사범대가 5년간 언어재활치료 분야에서 전문가 교육의 기반을 제대로 닦아놓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공으로 언어치료사 겸 교사 자격과 지체장애아 교육자 자격을 인증하는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사실 3번째 전공으로 심리학 자격도 딸 수 있었지만 모스크바에서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정식으로 5년간 배웠지만, 이 지식을 그는 잘 이용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연수도 많이 받기도 했다.

"언어치료교사라는 직업은 매우 책임있고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이 과정은 기적같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이가 어떤 음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수업을 지나 그가 그 음을 배웠습니다. 거의 바로 저의 활동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저의 직업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는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인내와 참을성을 가르치고 하루하루 이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린 아이가 뭔가 잘 되면 자부심을 갖게 되고, 기뻐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라고 자신

의 직업에 대한 사랑을 나탈리아는 고백했다.

이런 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신에게 감사하다면서 한 번도 이 직업을 포기나 바꿔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도시에서 교육을 허락하고 지원한 부모님에게도 매우 감사하다고 한다.

"그 당시 사실 가족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제가 꿈을 접지 않도록 한 데 대해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라고 했다.

러시아 중부지역에서 살던 나탈리아의 어머니는 블라디미르 사범대를 졸업하고 사할린에 발령되었다. 사할린에 와서 한인 남자와 결혼해 45년간 한 학교에서만 영어교사로 근무했다. 그리고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루고워에서 살았다. 그의 딸 나탈리아도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일터도 루고워에 있다.

경력 초기엔 유즈노사할린스크 두 유치원에서 언어치료교사로서 뇌성마비 장애아 대상으로 하는 그룹을 맡은 적이 있었다. 시집을 가서 출산과 육아 후에 그는 도시 남쪽에 있는 유치원은 그만두었다. 가족이 생기고 아들이 태어나면서 루고워에 있는 집 가까이 일자리를 잡아야만 했다.

고급 수준의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그는 최근 19년간 '가르모니아'유치원에서 활약하게 된다.

"저는 일자리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분위기와 유치원 직원들, 지도부 등 - 모두 훌륭해요. 지도부에서 항상 응원하기도 합니다. 기쁨들도 함께 세웁니다."라고

김 나탈리아가 말했다.

현재 그는 언어치료 특수그룹(5세-6세)을 맡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언어치료특별위원회에서 선정된 아이들이다. 이들은 발달장애(지적 장애)는 없고 다만 말이 또래보다 많이 느린 경우이며, 음성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아이보다 언어장애가 심각한 경우 등등 이 특수그룹의 대상자가 된다. 도시의 여러 유치원에서 이런 그룹이 있는데 보통 살고 있는 구역별로 정한다. 그래서 '가르모니아'유치원에는 루고워의 여러 유치원 아이들 중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선정해 가르치고 있다.

김 나탈리아 언어치료교사는 수업이 매일 있다. 그룹 전체 학생들 수업, 조별 수업, 개인별 수업 등등이다.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언어능력을 습득하도록 다양한 교수법을 쓰고 있다.

작년에는 유치원 지도부와 함께 '사할린 에너지'의 사회적 장려금 40만 루블리를 받아 언어치료를 위한 '콜리브리 로고' 종합 치료교구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 종합 치료교구는 아이들에게 게임과 화면을 통해 즐겁게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배우는 것을 상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웃으면서 "아이들은 저를 좋아해요. 잘 따라옵니다."라고 말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그에 대한 따뜻함과 진지함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에게는 열려있지 않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 친한 친구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만큼은 정말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다. 막힌 말문을 여는 사람으로

서 그는 아이들 중에서 인기가 많다. 고급 전문가로서 그는 임신 중에, 영아 때의 식성 등등을 고려해서 언어장애의 원인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상담과 교육을 받고 지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일부는 유치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있고 일부는 그가 개업으로 차린 개인 언어치료사실을 찾기도 한다. 희망자가 너무 많아 거절하기 보다는 다른 전문가들을 많이 추천하기도 한다.

필자가 나탈리아 선생에게 좋아하는 말에 대해 물었더니 그는 짧은 시 하나를 말했는데 그 내용은 역시 자기가 하는 직업보다 좋은 직업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1등을 차지, 취미는 독서다. 전문 책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내용의 책을 읽기 좋아한다. 독서는 거의 매일 즐긴다. 전자책을 많이 읽지만 야외에 나갈 때는 꼭 종이책을 챙긴다. 종이책이 그대로 맛이 나니까.

겨울에는 그가 즐겨 하는 것이 산악스키다. 사실 자기가 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아들이 산악스키스포츠허교에 데려다주다 보니 스스로 스키를 타게 되었다. 운동할 체력이 아니지만 산악스키만큼은 이미 14년째 즐기고 있다.

김 나탈리아 선생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주 대표단, 국제 소수민족 원주민 창작 박람회에서 대상 수상

<북방의 보물. 2022년 러시아의 장인과 예술가> 제 17회 국제 전시-박람회에서 사할린주 대표단이 대상을 수상했다.

9월14일(수) - 18일(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이 대규모 행사에 러시아 25개 지역들에서 극동, 시베리아, 북방의 소수민족 원주민들의 대표단들이 참가했다.

사할린의 대표단은 사할린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공예 우수 장인과 '아리 라 미프(북풍의 땅)' 닙흐족 민속양상불, 사할린주 및 극동 '모국어'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 언어로 개최되는 지역 유청소년 콘퍼런스의 우승자들로 구성됐다.

<2022년 북방의 보물. 러시아의 장인 및 예술가> 국제 전시-박람회의 일환으로 며칠간 진행된 경쟁과 경연의 결과에 따라 경연조직위는 가장 중요한 전시회 방문객들의 평가로 사할린주의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의 독특한 문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여러 프로그램 부문에서 승리의 월계수가 사할린의 참가자들에게 주어졌다.

주요한 우승은 사할린주 전람관의 전시가 대상을 받은 것이다.

Сахалинцы завоевали гран-пр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творчества КМНС

Делег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ала обладателем гран-при на XV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ярмарке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Мастера и художники России 2022".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с 14 по 18 сен-

тября в Москве и собрал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з 25-т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Островную делегацию представили лучшие мастер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из разны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народ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нивхский ансамбль "Ари ла миф" ("Земля северного ветра") из Ноглик и побе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ой детско-юноше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на языках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дная речь".

По итогам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конкурсов и состязаний в рамках XVII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ярмарки "Сокровища Севера. Мастера и художники России 2022" конкурсная комиссия, а самое главное —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 по достоинству оценили уникальность культуры коренных этно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альма первенства во многих программах была по праву отдана именно сахалинцам.

Главной победой стал гран-при выставки, врученный стел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 주민들에게 '컬링' 종목 소개

사할린주가 지역을 위해 새로운 스포츠 종목 '컬링'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할린 주민들에게 시범 수업의 일환으로 컬링의 장비와 규칙을 알려주었다.

20kg의 스톤과 컬링 브롬(브러시), 컬링 신발(슬라이더 슈)은 컬링 선수의 기본 장비다. 경기에는 한 팀당 4명으로 구성되어 두 팀이 참가한다. 그리고 각 팀에 참가자들이 차례대로 밀어 넣을 8개의 컬링 스톤이 주어진다. 각 팀의 과제는 스톤들이 표적 중앙에 머물도록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하는 것이다. 스톤이 더 빨리 미끄러지고, 주어진 궤도에서 벗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브롬으로 얼음을 문질러주어야 한다.

올 7월에는 러시아 컬링연맹 회장인 드미트리 스비세브와 사할린주 스포츠부 장관 아르쎘 포드쉬발로브가 사할린주에서 컬링 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수업은 8세 이상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진행된다.

컬링 종목 코치이자 스포츠 장인이며 러시아 컬링 국가대표 선수인 예카테리나 안토노와는 사할린 현지 코치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고, 하바롭스크 변경 컬링 대표팀의 수석 코치인 파벨 미친과 함께 배움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첫 '컬링' 활동교실을 열었다. 활동교실은 전 연령대를 고려하여 진행됐다. 새로운 각각의 그룹을 위해 강사들은 설명회를 갖고, 간단히 규칙을 설명하며 경기 시범을 보여주었다.

컬링 교습은 '위스톡' 교습훈련센터에서 매주 월, 수, 금 15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된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Сахалинцы познакомилсь с керлингом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инает свое развитие новый для региона вид спорта — керлинг. В рамках пробных занятий островитяне мог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нвентарем и правилами игры.

20-килограммовые камни, щетка и скользящая подошва-слайдер — это основной инвентарь керлингиста. По правилам играют две команды по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У каждой команды по восемь камней, которые участники толкают поочередно. Задача каждой команды — рассчитать скорость и направление камней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они остановились в центре мишени. Тереть лед щеткой над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камень скользил быстрее и не сворачивал с заданной траектории.

(8면에 계속)

'탈' 주제 제5회<장인들의 박람회>문화체험축제 진행

지난 2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5회 <장인들의 박람회>한민족 문화체험 축제가 펼쳐졌다. 사할린 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과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축제가 이번엔 5주년을 맞이했다. 이날 행사장에 모인 약 100명의 참가자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크라스노고르스크의 학교 학생들과 사할린국립대 학생들이다. 이들은 한민족 문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로서 한국 문화 경시대회, 퀴즈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의 수상자와 입상자라고 주최 측이 전했다. 이번 한민족 문화체험 축제의 주제는 <한국 전통 탈>이었다.

<장인들의 박람회>체험축제의 첫 회부터 기획 진행 담당인 임 엘비라 학장은 대회 참가자들에게 간단히 박람회를 소개하고 이날 프로그램을 알렸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이날 모든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하며, 5년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장인들의 박람회'가 정말 다양했고, 내용이 한 번도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임 엘비라 학장의 역할과 공로가 컸다고 축하했다.

이날 특강을 한 사할린주 미술박물관 하이 울가 수석연구 전문가(한국, 중국, 일본 문화예술 담당)는 한국 탈의 역사, 종류와 구조, 특히 하회탈을 간단히 소개하고 주 미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민족 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 이후 학생들은 이미 석고(깁스)와 한지로 만들어진 전통 탈에 색칠할 수 있었다.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림을 완성하여 탈은 저마다 자기의 성격이 나타났다.

이번 박람회를 위해 준비자료로 학생들에게 탈의 기본 모형을 제공해야 했는데 한민족 공예에 관심이 많은 임 엘비라 교수가 아이디어를 내어 직접 만들기도 했다. 깁스로 탈 모양을 만들고 탈을 한지로 덮어 붙였다. 그래서 탈의 색상도 다양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 녹색, 파란색 등이었다. 이렇게 축제를 위해 탈 90개를 임 교수가 거의 혼자 준비했다. 공예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본다. 임 엘비라 교수는 "공예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며 "무엇보다 한민족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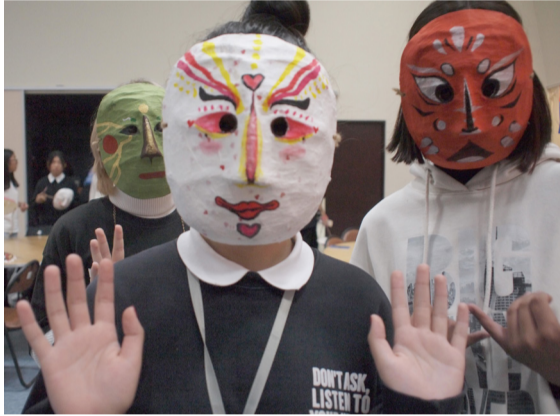
주최 측은 5년 전에 처음으로 사할린주 정부가 지원하는 '세대의 연결, 전통의 이어줌' 사회적 기획의 일환으로 <장인들의 박람회>를 개최하여 그때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첫 축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보고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에 한인문화센터에서 진행한 이 행사에는 보통 200여 명이 참가했었다. 팬데믹 시기에도 이 행사를 계속 하긴 했는데, 참가자 수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여러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진행했다.

박람회를 넘어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은 한민족의 다양한 행사들의 한 부분으로 실시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진행했다. 한글 쓰기, 매듭 만들기, 한지공예 등 활동교실은 항상 인기가 많으며 사할린에서 한민족 문화를 대중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엔 <장인들의 박람회>의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최 측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창안했다. 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절 기분을 내어 탈춤도 추는 것이다.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이병일 원장에게 이를 의뢰해 이 원장이 사할린국립대 한국어 전공 1학년생 몇 명에게 즐겁고도 쉬운 탈춤을 가르쳐주었다. 탈을 만들기 전에 무대에 오른 신입생 3명과 이병일 원장이 한국의 '소리야 밴드'의 '뷰티풀 코리아'노래에 맞추어 신명나는 탈춤을 선보였다. 마스크를 만든 후 참가자 모두 일어나 자신이 만든 탈을 쓰고 초등학교생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동작을 익혀 다함께 탈춤을 추어 정말 즐겁고 볼만 한 광경이 펼쳐졌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별은 너에게로 / 박노해

어두운 길을 걷다가
빛나는 별 하나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구름 때문이 아니다
불운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네가 본 별들은
수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

길 없는 어둠을 걷다가
별의 지도마저 없다고
주저앉지 말아라

가장 빛나는 별은 지금
간절하게 길을 찾는 너에게로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으니



"힘 내시라고. 지구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사실 조금만 더 멀리서 우리의 지구를 바라보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잖아요. 깜깜한 무중력의 우주 어딘가에서 먼 것처럼 뚝뚝 떠다니다가 저 멀리 우리 지구가 보이면 참 반가울 테니. 거기, '지구'라는 행성은 기가 막힐 정도로 태양 빛이 적당히 들어오고, 이 따사로운 별이 또 함부로 지구를 태워버릴까봐 별의별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엄청나게 동그란 자석이면서도 뒤뚱뒤뚱 아무렇게나 뺨글뺨글 도는 공일 뻔했잖아요. 신비할 정도로 이제는 '달'이 또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아주아주 미세한 각도만 틀어져도 난리 날 뻔했죠. 화투로 치자면 우리 모두는 '뺨' 잡은 겁니다. 포커로는 로얄 이스탄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구에서 어느 도시의 어느 골목에서 주저 앉았습니다. 중력이 겁나 당겨주니, 발 끝으로 피는 몰리고, 피곤하고, 출퇴근해야 하고, 딱 미치지 않을 만큼의 피곤함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다시 우리의 푸른 별을 넘어 어딘가로 떠나 볼까요?

별과 빛은 천문학자들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왜 그리 우주의 원리를 파헤치려 할까요?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갈지, 느닷없는 이런 질문은 시간을 한도 끝도 없이 잡아 먹기 십상. 하늘을 보면 답을 알 것만 같아요. 밤 하늘을. 밤 하늘의 별들을 보면요. 예뻐요. 눈물이 날 만큼. 저 빛이 우리에게 공룡이 날뛰던 시절의 그 시간이라니. 저는 믿지 않을래요. 안 믿으면 의외로 '장뺨'이니까. 누군가는 38 광뺨을 들고 있고, 저는 '장뺨'을 들고 있습니다. 이 판은 제가 꼭 지고 마는 게임 같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94 다시'를 들고 있으면야, 뭐, 이번 판은 '나가리'일 테니. 별의 별 일들이 늘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우리는 오직 그것에만 가치의 기준을 삼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요런 걸 언급하려다보니 말이 길었습니다. '호오, 제가 이런 말까지! 오늘 원고가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지 점점 초조해지네요, 아무튼! 가치의 기준을요. 아니 기분을 말이지요. 조금만 더 머리를 쥐어짜내 보죠. 긍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안 풀리는 일들은 떨거 버릇 하시고요. 확실한 거 하나. 주인공은 우리일 테니. 늘 저렇게 멀리서 반짝이고 있잖아요. 저 별들이, 바람이, 그리고 드높은 가을 하늘이."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개최, 글로벌 한인리더 한자리에 모인다

10월 4일 인천 송도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전 세계 한인회장 및 한인 연합회 360여 명 참여 예정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오는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다.

*주최 : 재외동포재단 / 주관 : 재외동포재단, 인천광역시 / 후원 : 외교부

특히 이번 대회는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해 이민 출발지였던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며, 「한국 이민사 120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인천 이민사 투어 등 한인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세계로 간 대(大)한국인, 돌아오다'라는 슬로건 아래 총 77개국 360여 명의 한인회장과 한인 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회 공동의장은 유재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과 유영준 중남미한인총연합회장이 맡았다.

김성곤 이사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지구촌 동포사회 발전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인회장과 한인 연합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특히, 서울이 아닌 동북아시아 허브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송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만큼 인천시와 협력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2022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6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세계로 간 大한국인, 돌아오다
World Korean, Home coming

2022. 10. 4.(화) ~ 10.7.(금)
송도 컨벤시아

대한제국 해외여행장 大韓帝國 海外旅行章
1904년 12월 22일 222명의 한인 이민단출 사건 경건하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사용된 일조(이판)

주최: 재외동포재단 | 주관: 재외동포재단 | 인천광역시 | 후원: 외교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Участники «Ярмарки мастеров» погрузились в мир масок

24 сентября 2022 г.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а 5-ая ярмарк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на Сахалине. На юбилейную «Ярмарку мастеров»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победители, призеры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а также активисты, с огромны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изуч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 шко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хГУ. В зале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90 человек, здесь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е тольк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ехали школьники из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Ярмарк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традиционно кафедрой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ФиИВ СахГУ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окрывалась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бумагой – ханджи. Автором этого «рецепта» и исполнителем стала директор ИФиИВ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большой приверженец и поклонник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ореи.

После создания своей оригинальной маски все участники стали разучивать движения стилизованн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танца масок, постановщиком-режиссером которого стал директор просвещ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и Бен Юль, который разучил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этот танец с первокурсниками, обучающихся н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Ребята вместе с директором просвещения показали этот танец перед началом мастер-класса по росписи масок, а затем стали показывать движения участникам ярмарки. Надо сказать, флеш-моб удался, праздничное настроение было обеспечено.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Красавица и чудовище в одном лице

«Глупец, он и не подозревает, что под красотой скрывается чудовище...» – это цитата из книги Кэт Чо «Злая лисица». Кэт Чо – американ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Ее дебютный роман «Злая лисица» был опубликован в 2019 году, а уже в 2021 году в переводе с английского Ксении Тринкунас появился 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Это необычн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быстро стало популярным не только на Западе, но и в Южной Корее. Растёт количество поклонников прозы Кэт Чо и в России. Вслед за первой книгой появились и другие издания: например, «Жестокие духи» (2022).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 история о девушке Ку Миён – кумихо или же девятихвостой лисе. Для выживания Миён необходимо питаться энергией людей, а точнее – энерги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ильного пола. Постоянные переезды с одного места жительства, на другое, напрочь убивают в юной лисице желание заводить друзей, да и просто знакомых. Но всё изменилось в один момент: Миён единственная дочь своей матери – кумихо и смертного мужчины, который оставил их ещё до её рождения. Она приезжает в Сеул, чтобы пообщаться с жизнью и научиться быть незаметной среди людей, поэтому мать отправляет девушку в школу. Там она встречает Джихуна, которого не так давно спасла от нападения токкэби. Он знает её секрет: однажды увидел, как в лесу девушка потеряла бусину (нечто вроде души лисицы). Сторонясь одноклассников, героиня попадает в немилость у подростков, и юноша принимает сторону девушки, желая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оближе. У обоих проблемы с родителями: у Миён – с матерью, которая агрессивна из-за неправильного поведения дочери, а Джихун не ладит со своими старшими членами семьи.

Хотя это и роман-фэнтези, но Кэт Чо поднимает довольно важные вопросы: что такое добро и что такое зло? Может ли любовь изменить человека за столь короткий срок? Что скрывается за внешней красотой? Выбор собственного счастья или счастье близких в обмен на одиночество? Как должны складываться отношения детей и родителей? И это только малая часть вопросов.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и полное погружение в атмосферу книги, а, в частности, в жизнь людей в Сеуле. Это делается за счёт упоминания столичных локаций, огромного количества иных городских топонимов. А ещё Кэт Чо



много пишет о еде. У писательницы получилось рассказать едва ли не обо всех блюд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Кэт Чо затронула и культуру Кореи, и особенности менталитета, и обра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громное внимание она уделила мифологии, традициям и суевериям современных корейцев.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что в книге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много корейских слов. Так, например, главный герой обращается к своей бабушке именно по-корейски – «хальмони» (할머니) или же к знакомому семье – «аджосси» (아저씨).

В русском переводе примерно сотня примечаний и если читатели не являются знатокам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гурманами ил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ми, то роман «Злая лисица» станет полезным руководством для первых шагов в постижении мира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А если интерес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чтения книги нарастёт с новой силой, то мож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и со второй частью. Она называется «Жестокие духи» и в этом году уже была переведена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Книги писательницы можно читать не только в традиционном виде, но и в электронном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ЛитРесе).

Дарья Затолокина,
студент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РК создадут пеший маршрут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849 км

В РК будет создан пеший маршрут протяжённостью 849 км, который проляжет от соснового леса на острове Анмёndo в уезде Тхэ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до соснового леса Кымган в Ульчжи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Проект будет завершён в 2026 году. Данный пеший маршрут будет длиннее, чем известный Путь Сантьяго или Дорога Святого Иакова в Испании. Путь через леса вдоль гор Каясан пронизан духом древн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экчэ, а также историей буддизма и католицизма. У крепости Кечжонсансон в Тэчжоне расположены лес и глиняная дорога, по которой можно пройти босиком. В Чхонджу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Пукто путь проходит через озеро Тэчхонхо, где можно пройтись, наслаждаясь прохладным ветром. После прогулки по таким местам появляется лёгкость в душе и теле. Весь маршрут протянулся от уезда Тхэа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хунчхон-Намдо через Сэчжон, Тэчжон, провинцию Чхунчхон-Пукто, уезд Ульжин-гун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43 млн долларов. Маршрут, состоящий из 57 отрезков, пролегает через 225 деревень. Вдоль всего пути планируется определить кемпинг-площадки и другие места отдыха. Ожидается, что проект внесёт вклад в повышение турист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и улучше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KBS World

Каннамский фестиваль возвращается

После двухлетнего перерыва Каннамский фестиваль в одноимённ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округе Сеула пройдёт в полномасштабном формат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22 сентябр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круга Каннам-гу. 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30 сентября по 8 октября и будет включать 19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в том числе, классические выступления, концерты с участием звёзд К-поп, показы мод и медиа-шоу. В большом концерте на открытии фестиваля 30 сентября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порядка 170 исполнителей.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состоится 19-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марафон мира, в котором ожидается участие около шести тысяч человек.

KDI и ОЭСР проведут в Париж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инансовый форум

29-30 сентября в Париже состои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инансовый форум РК-ОЭСР. Его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являются Организ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развития (ОЭСР) и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развития (KDI). Его участники – финансовые эксперт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специалисты из стран-членов ОЭСР по бюджетным вопросам – обсудят финансовую ситуацию в мире, а также тему развития финансового рынка в постковидную эпоху.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едставит план реформирования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с целью её укрепления.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2022 г. — **96 руб. 92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хеньян выбирает подходящее время для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завершена подготовка к проведению очередного ядерного испытан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27 сентября на встреч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отметив, что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Север, судя по всему, выбирает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ее время для его проведения. Признаки работы реактора в ядерном центре в Ёнбёне фиксируются постоянно, а имеющиеся данные указывают на завершение подготовки туннелей к закладке ядерного заряда. Что касается времени проведения, то в прошлом Пхеньян старался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избегать серьёзных провокаций в период проведения в Китае поли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Так, с 16 по 20 октября в Пекине состоится XX съезд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итая. Скорее всего, в этот период Север воздержится от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В РК отменён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С 26 сентября в РК отменён обязательный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проводимых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включая концерты, митинги,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объясняется низким риск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ов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и успехами страны в борьбе с пандемией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инято через полтора года после того, как были введены строгие карантинные правила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COVID-19. Введённое 13 октября 2020 года требование обязательного ношения масок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было частично ослаблено в начале мая этого года, но митинги, концерты,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и другие собрания с участием 50 и более человек подпадали под действие масочного режима.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комендуют и впредь не снимать маски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людям с симптомами COVID-19,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групп высокого риска, включа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людей с ослабленным иммунитетом и тех, кто ещё не прошёл вакцинацию. Тем, кто вступал в контакт с инфицированными COVID-19, либо участникам многолюдных собрани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которые поют хором или активно общаются, также рекомендуется продолжать носить маски на улице. Остаётся в силе также требование обязательного ношения масок в помещениях. Это связано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гриппа и вероятностью новой волны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зимний период.

Президент РК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проблему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Для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ы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необходима эффективная политика, основанная на науке, а не на популизм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27 сент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Он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изнать ошибки прежней политик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16 л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тратило 280 трлн вон (200 млрд долларов) на решение данной проблемы.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во втором кварт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щий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то есть, среднее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рождаемых женщиной за всю жизнь, опустился до рекордн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0,75.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ровести реструктуризацию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низкой рождаемости и старения общества с тем, чтобы он мог выполнять роль центра принятия решений по данной проблем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заявил также, что для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й проблемы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регионы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ботали в дан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н сообщил о планах создать в городе Сэчжоне презид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по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ов.

ВМС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С 26 по 29 сентября ВМС РК и США провели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в Восточном море. По данным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в их программе манёвры сил специальных операций (МСОФ), отработка мер по обнаружению и уничтожению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противника, отработка действий ПВО, тактические манёвры. Со стороны США в уче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американский атомный авианосец Ronald Reagan, ракетный крейсер Chancellorsville, эсминец Barry и Benfold.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МС представлены эсминцами «Соз Рюсонрён» и «Мунму Великий». В манёврах задействованы палубные истребители-бомбардировщики и штурмовики, FA-18, патрульные самолёты P-3, P-8, вертолёты AW-159, MH-60R, размещённые на авианосце, а такж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стребители F-15K и KF-16, ударные вертолёты AH-64E.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ВМС двух стран с участием американского авианосца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впервые с 2017 года. Их цель - повышения боеспособности ВМС РК и США, а также демонстрации готовности противостоять недружественным действиям Пхеньяна.

(RKI)

Мы с тобой одной крови – Ты и Я!

В столиц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амом сердце Сеул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узее этнограф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олевского дворца Кёнбоккун 6 сентября состоялась официальна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специальной выставки «Корейцы, корё сарам», приуроченной к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 откры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консул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скар Аслан, консул Посоль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Арзиев Фазлиддин, председатель Национального фонда наследия Ким Джон Гю,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узея «Хангыль» Ким Ён Су, директо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музея истории Кореи Нам Хви Сук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Данная выставка составлена из работ фотохудожника Виктора Ана, который на протяжении более чем сорока лет собирал фотоматериал о жизни корейцев, живущих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Жизнь простых людей, будни и праздники запечатлены на множестве фотографий Виктора Ивановича. Каждая фотография – это маленькая история из чьей-то жизни.

С первого дня выставка вызвала очень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Кореи стали приезжать русскоязычные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данное время в южной части полуострова. Кто-то находил на фотографиях своих родных, кто-то своих знакомых, а кому-то сюжеты фоторабот напоминали собственную жизнь.

Творче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MEDIA SARAM стало инициатором проведения данной выставки и принимало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е участие в подготовке с самого первого дня, весь видеоматериал на данной экспозиции предоставлен объединением.

– Выставка фоторабот Виктора Ана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м музее Кореи – эт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оллективная работа, в которую вложились с особым усердием и искренностью люди (кураторы, руководител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дизайнеры), которые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вообще не знали о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ах ничего, – 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Хан («MEDIA SARAM»). – Поэтому это не просто выставка фотографий, сплав визуальных искусств, как с помощью современных выставоч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и технологий на материале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фотографий можно показать кто мы, какие мы – корё сарам, – а их личный ответ на эти вопросы, чтобы потом рассказать об этом всем, кто придёт посмотреть эту выставку. И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у них это получилось! Многие из пришедших нашли на фотографиях Виктора Ана своих близких и знакомых. И я не исключение...

Валентина Пак («MEDIA SARAM», спонсор поездки Виктора Ана в Корею):

– Музей этнографии – это не только статичные залы с экспонатам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зея можно побродить по домику времён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поглазеть на идолов и идолов, поиграть в игры, что существовали в Корею с незапамятных времён. А ещё 10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 празднование Чхусок, и семьи потянулись посмотрет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амульнори, поесть праздничный хлеб, загадать и написать заветное желание и заглянуть в залы музея. Очень много посетителей было и на нашей выставке. Здорово, что такие ценные фотографии Виктора Ана, составляющие основу выставки, поддерживаются другими форматами – много видео, альбомов, да и сами фотографии словно оживают. Дизайнеры постарались! И можно было наблюдать, как взрослые, дети, молодые люди о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и застыли возле какой-то истории. Есть надежда, что мосты и мостики потянутся от простых людей, живущих в Корею, к нам – корё-сарам через призму камеры Виктора Ана.

За каждой фотографией человеческая судьба, кого-то из героев сюжета уже нет в живых, но благодаря фотографии мы смотрим снова и снова на их лица и вспоминаем прошлое.

– Почему я говорю, что я счастливый человек? На самом деле это всё достигается через какие-то определенные жертвы, – говорит Виктор Ан: – Как фотограф ты должен найти свой язык, свой стиль, свою тему. Это было в середине 80-х годов, когда я пришёл к мысли: кто, если не я будет освещать тему корё сарам? У меня появилось это ощущение, понимание. Во всём бывшем СНГ всего два человека, снимающих системно эту тему. Михаил Ли из Сахалина, репортер



сахалинской газеты, и я.

– Виктор Иванович, скажите, быть корейцем – это благословение или наказание?

– В то время корейцы стеснялись сво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Есть такой факт. Но у меня этого совершенно не было. В те времена свое место под солнцем мы с друзьями отвоевывали кулаками. И для нас это очень важный момент.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это родина моих родителей, и у них всю жизнь была ностальгия по тем местам. В 2002-2003 годах я был впервые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ама сказала, где примерно искать деревню, в которой она росла. Но когда я прилетел в Приморье, меня ожидало разочарование. Мои ожидания не оправдались. Наших следов я не нашел. Чтобы был исторический след, нужно жить там, наверное, не менее 200 лет. Фотография становится интересной только спустя время, через 20 лет она приобретает ценность, которая постоянно растёт.

На выставку приходит очень много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Возле одной фотографии стояла женщина и плакала. Оказалось, что она бывшая журналистка YONHAP NEWS, сейчас уже на пенсии. Глядя на фотографии, она ощутила необъяснимые чувства, как будто увидела близких, с которыми пришлось когда-то расстаться на долгие годы.

Виктор Ан, глядя на то, какие бурные эмоции вызывают его фотографии, сказал, что было бы замечательно, если Корея сделает ответную похожую выставку в одной из стран СНГ о жизни простых южных корейцев. Возможно, это поможет ещё лучше понять и принять друг друга.

Корейцы, где бы они не жили, на каком бы языке не говорили, имеют общие корни. И генетическая память должна подсказать нам путь к пониманию друг друга. Выставка продлится до 7 ноября 2022 года. И многие из тех, кто придёт на нее, возможно, увидят себя или своих родных на одной из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фотографий.

Ан Виктор Иванович. Родился в 1947 году в Узбекистане.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гидромелиоратор. В разные годы работал слесарем-механиком, электриком, кинемехаником, радиомастером, водителем, преподавал на станции юных техников, выращивал лук и друг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е культуры. С 1978 год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фотограф. Собственный корреспондент по Узбекистану корейской газеты «Ленин кичи». С 1991 по 2003 год – собкор по Казахстану и Узбекистану газеты «Коре Ильб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свободный фотограф. Приоритет в творчестве автора – жанровая фотография, перешедшая в фотопублицистику и в итоге в фотосторию. Одна из главных его тем – жизнь корейцев. Виктор Ан охватил многие регионы, где проживают корейские диаспоры: Узбекистан, Казахстан, Россию, Корею, Японию. В разные годы автор выставлялся в Эстонии (1995), Болгарии (1985), Швейцарии (1998), Японии (1995, 2002), Германии (2009), Корею (1996),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е, Узбекистане (1985), Швейцарии (1998), Японии (1995, 2002), Германии (2009), Корею (1996),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е, Узбекистане.

Евгения ЦХАЙ, Сеул

Источник: <https://koreans.kz/news>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Реклама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цев –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госучреждений и члены их семей

По последним данным более 320 человек из числ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лужа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и сотрудник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изваны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Их количество ежеднев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 лидеры по числу призывников: Корсаковский, Ногликский, Охинский районы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ольше всего призвано сотрудников из сфер образовани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и ЧС,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В числе мобилизуемых и советник министерства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сен Рамазанов, в прошлом –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Он окончил Московское высшее военное командное училище, имеет офицерское звание майора.

– Для меня непременно прятаться и скрываться. Понимаю, что это необходимо на благо Родины. Пришла повестка – выполняю. Сейчас я собираюсь в храм, а потом в военкомат. Настроение боевое! Опыт у меня есть,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был в Сирии. Думаю, что мои знания и навыки на освобожд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тоже пригодятся. У сахалинцев дух крепкий, никто не раскисает, все знают, что там нашим ребятам нужна помощь. Если отправят на передовую, отказываться не буду, – поделился Арсен Рамазанов.

У исполняющей обязан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я отдела ЗАГС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Евгении Хомицкой на службу отправлен супруг.

– Когда мужу принесли повестку, дома никого не было. Потом он пришел, собрал вещмешок и пошел в военкомат. Он сказал: «Я не собираюсь отсиживаться в подвале. Я – десантник. Никто, кроме меня». Муж военный, только в декабре ушел со службы. Конечно, мне тревожно, но я всячески поддерживаю мужа. Я верю, что он вернется. И дети верят. Они и меня сейчас очень поддерживают, окружают заботой, – рассказала Евгения Хомицкая.

Большая часть призванных на службу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лужащих,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и сотрудников госучреждений уже постигают учебно-боевую подготовку в военных частях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зыв, медкомиссию и доставку в военные части они проходят на общих условиях.

Готовност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 началу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приближается к 100 процентам

Дата начала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определена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мэра. Это 1 октября.

Как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мунальная Компания» Максим Беккер, котельные, насосные станции, центральные тепловые пункты готовы на 100 процентов. К концу сегодняшних суток специалисты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заполнение магистральных сетей. На 28 сентября намечен запуск двух первых насосных станций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малой циркуляции, обеспечивающей прогрев сетей. 1 октября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по подключению абонентов. Процесс займет несколько дней.

– Пусковые операции всегда достаточно напряженные. На сетях в летние месяцы велись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поэтому пока сети холодные. При подаче теплоносителя возможны повреждения, но они будут устраняться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Надеемся, что доставим минимум дискомфорта нашим потребителям, – отметил Максим Беккер.

В летний период предприятием был проведен большой объем работ: заменены около полутора километров сетей, еще чуть менее километра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с последующей теплоизоляцией.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должают. «СКК» планирует заключить еще один договор с тем, чтобы сделать их переходящим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и продолжить ремонт тепловой изоляции на наиболее поврежденных участках.

– Мы готовы. Все котельные имеют достаточный запас топлива, как резервного, так и основного. Сети приведены в рабочее состояние, городские магистральные коллекторы, как и положено, заполнены водой.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подключение к теплу больниц, школ, детских садов, – заключил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Римша.

Напомним, что в северных районах отопительный сезон уже стартовал. Раньше всех он начался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 с 17 сентября здесь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ключению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С 22 сентября теплее стало в квартирах жителей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а. Следующим должен войти в отопительный период Тымовский район. Заполнение системы теплоносителем началось 26 сентября.

Жителям домов, подключенных к центральному отоплению, после старта отопительного сезона необходимо обращать внимание на внутриквартирные и подъездные сети. В случае обнаружения неисправностей необходимо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обратиться в управляющую компанию. Можно также звонить по номерам единых диспетчерских дежурных служб или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ЖКХ по телефону: *0065 или 8(800)3020065.

Работа по подготовке к отопительному периоду нахо-

дится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Каждый третий ж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получателем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р поддержк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исло получателей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неуклонно растёт. В 2022 год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1 сентября, их число достигло 229 000 человек. Всего за первые 8 месяцев 2022 года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р соцподдержки было потрачено 10, 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то на 300 миллионов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оциаль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ринятые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полняются регулярно и в полном объёме. Это привело к существенному улучшению качества и расшир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услуг, оказываемых населению.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их лет число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помощь от государства, имеет стабильную тенденцию на увеличение. Каждый третий житель области является получателем федеральных и региональных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Бюдже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сегда являлся и является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 отмечает министр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Ольга Орлова.

Кроме работы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этом году появились новые меры и механизмы поддержки. Так, с 1 ма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организован приём заявлений на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ежемесячной денежной выплаты на ребенка от 8 до 17 лет. Её размер составляет 50 процентов от величины прожиточного минимума для детей, установленно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сходя из среднедушевого дохода малоимущей семьи, сумма выплаты может достигать 17992 рублей. На данную меру поддержки, с учётом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правлено более 1,2 1, 2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Получателями выплаты уже являются 6734 родителя, воспитывающих 9157 детей.

Расширены со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гражданам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инвалидам, а также гражданам в статусе «Дети войны»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олное возмещение затрат за проживание в пансионате, действующем при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расширении круга лиц,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действия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на всех неработающих пенсионеров, являющихся получателями пенсий по линии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а мера актуальна для те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приезжают на лечение, консультацию, обследован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ную клиническую больницу.

Также с начала года проработан и дополнен список мер, а также новых механизмов поддержки, реализуемых при помощи электронного социального сертификата – на основе «Единой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Так, для детей и граждан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доступно посещение водных аттракционов, горок и бассейнов, с применением такой карты. Только на эти цели в бюджете област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больше 7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Более 13 000 человек, детей и пожилых граждан, с начала года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такой услугой.

Также ЕКС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ать адресну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помощь, при том, не в натуральном виде, а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ирая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Сегодня такая помощь составляет 1900 рублей на каждого члена малоимущей семьи (2050 для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и для Курил).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дала возможность людям, проживающим в домах с печным отоплени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новый механизм поддержки, чтобы сэкономить на твёрдом топливе. Теперь, оформив социальный счёт, сахалинцы могут получать на него аванс, чтобы тратить меньше своих средств на покупку уг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кие авансирования одобрили 226 гражданам, на общую сумму 5, 4 миллиону рублей.

Больше 1000 контейнеров для раздельного сбора отходов установили на Сахалине

К сортировке тверд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тходов приступили жители Охи и Поронайска. В Тымовском, Смирных и Невельске идет процесс установки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для раздельного накопления. Работа по оснащению площадок специальными ёмкостями для пластика, металла и стекла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Первыми к сортировке отходов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иступили жители села Дальне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тем подключился и весь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На сегодня город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по количеству установлен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контейнеров. Здесь было размещено более 500 емкостей для вторичного сырья.

– Работа не стоит на месте, количество контейнеров растет и в районах. Мы рады, что люди ответственно подходят к вопросу сортировки и интересуются, когда в их городе установят сетчатые контейнеры. В целом сахалинцы готовы к переменам в обращении с отходами. Многие обеспокоены состоянием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уверены, что раздельный сбор и переработка смогут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ть ситуацию, – подчеркну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Управление по обращению с отходами» Максим Федотов.

Работа по сбору и вывозу раздельно собранных отхо-

дов полностью налажена в Аниве, До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Ногликах и Холмске. Эти города обеспечены достаточным количеством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для пластика, металла и стекла.

– Процесс сортировки отходов все быстрее продвигается на север. Теперь он станет доступен жителям еще пяти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а. Сейчас там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порядка 180 новых сетчатых контейнеров. На очереди и други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Контейнерные площадки под специальные емкости для раздельно собранных отходов сегодня готовят также в Макарове, Томар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и Углегорске. В этом году все районы острова будут обеспечены специальными сетчатыми контейнерами.

Отметим, сортировка отходов – важнейший этап для сниж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мусора, который подлежит захоронению на полигонах. После разделения отходов на фракции часть из них отправляется на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заводы. Из вторичного сырья изготавливают новые вещи.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к 2030 году на сортировку будут отправлять 100% бытовых отходов,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вдвое снизится объем захоронения на полигонах.

Напомним, в этом году на полигоне «Известковый» установили мобильный сортировочный комплекс. Твердые коммунальные отходы проходят сортировку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в том числе и ручную. Их разделяют на фракции: пластик, алюминий, металл, стекло, картон и «хвосты». Часть отходов получают вторую жизнь: их отправляют на переработку на материк. «Хвостовые» фракции с помощью пресса укладывают в кипы и после захоронивают на полигоне.

На Сахалине почти втрое увеличили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сыров

Впервые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олутвердых сыро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о запущено в мае этого года. Сегодня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могут приобрести в магазинах 8 наименований полутвердых сыров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Первой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сыров запустила компания «Грин Агро-Сахалин». На рынок предприятие выпустило 6 видов этого продукта: «Гауда Премиум», «Тильзитер Премиум», «Голландский», «Российский Витязь», «Маасдам Премиум» и «Сметанковый».

Всег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изводством сыров занимается 9 молокопереработчиков. Например, молочный комбина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начал выпуск мягкого сыра «Адыгейский», 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совхоз запустил сразу два сыра: «Чайный» и «Сливочный». Производители очень тщательно подходят к выбору сырья. Сыры производятся из натурального цельного молока с высо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белка.

–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е только вырос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сырого молока, но и его качествен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А это, в свою очередь, дало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уст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сыра, ведь к качеству сырья для е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особые требования. Пока начали производство только одного наименования, но возможно и дальше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 рассказала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и качеству АО «Молочный комбинат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Раиса Реведнев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региона отмечают, добиться высоких результатов предприятиям удастся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серьезной поддержке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За три года в отрасль вложено 7,7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з региональной казны. Число предприятий за это время возросло на 70 и сегодня составляет 429, в регионе более 200 крестьянско-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Широкий комплекс мер поддержки позволяет 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повышать качество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разрабатывать и внедрять новые виды продукции, наращивать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овышать уровен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Жительница Курил вышла в финал конкурса «Воспитатель года России – 2022»

Воспитатель из села Малокурильское выступила в финале конкурса «Воспитатель года России - 2022».

Воспитатель детского сада «Островок» из села Малокурильское Палина Собгайд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финальном этапе конкурса «Воспитатель года России – 2022».

Курильчанка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ась с испытаниями первого тура.

Масштабны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с 22 по 28 сентября в Ярославле. В нем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83 работника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 всей России, – они уже стали лучшими на региональных этапах конкурса.

В финале конкурса сахалинка заочно презентовала свою визитную карточку и Интернет-ресурс. Во время первого тура воспитательница представила членам жюри свою педагогическую находку и провела 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 детьми. По итогам жеребьевки Палина Собгайда выступила первой и проводила занятие в старшей группе на тему «Осень красками богат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한인 이민 120주년 기념 '그날의 물결, 제물포로...' 특별전 개최

모국을 위해 공헌했던 한인들의 이민사를 총 망라한 700여 점의 사진과 영상 한국이민사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 출발 120주년을 맞아 한국이민사 박물관에서 10월 6일부터 전 세계로 뿔어나간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조명하는 '그날의 물결, 제물포로 돌아오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첫 공식 이민이 인천에서 출발한 지 12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 준비한 이번 전시는 세계로 뿔어나간 우리 민족의 이민 역사를 총망라해 돌아보는 자리이다. 이민선 출발 당시 항구 이름이 '제물포항'이었으나 현재는 '인천항'으로 지명이 변경됐다.

이번 전시에는 전 세계 한인들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700여 점이 출품됐으며 총 5부의 전시로 구성했다. 먼저 1부에서는 세계 속 한인사회의 모습과 모국에 기여한 재외동포들의 활동상을 보여주고 2부에서부터 5부까지는 한

인 이민의 역사를 다룬다.

2부에서는 한인 이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간도와 연해주,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 노동이민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된 일본, 사할린, 러시아 지역 한인들의 이야기도 살펴본다.

3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주권회복을 위해 해외로 건너간 독립 운동가들과 상해에 수립된 임시정부, 일본에서 시작돼 국내외로 번진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4부에서는 해방이후 돌아온 한인들과 돌아오지 못하고 해외에 남아 있는 한인들의 이야기를 전시한다. 또한 한국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생겨난 이민이었던 미군 신부, 전쟁고아 입양의 이야기도 다룬다.

마지막으로 5부에서는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베트남과 중동 파견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거주국에서 현지

인들과 혹은 한인들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한인사회의 노력도 소개한다.

이번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기념행사도 연계해 개최된다. 개막행사에 이어 진행되는 '하와이 이민자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및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10월 25일에는 차세대 재외동포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연계행사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는 낯선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도 모국을 위해 공헌하였던 이민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들의 삶을 공감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지상 1층의 야외전시장과 지하 특별전시장에서 내달 6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타 관련사항은 한국이민사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

[우리말로 깨닫다]

한국어 어휘력 사건

어휘력 사건이라고 쓰고 나니 웬지 강력 사건이 연상됩니다. 사회가 흥흥해져서 강력사건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의문입니다. 강력 사건이 예전에도 많았습니다.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강패와 조직폭력배로 난리였었죠. 정치 강패도 있었습니다. 하긴 우리나라도 군인이 폭력으로 정치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학생들의 어휘력이 문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최근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겠죠. 실제로 예전에도 어휘력은 늘 문제였고, 지금 어휘력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도 어휘력이 문제인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학생의 어휘력이 문제라고 할 때 그 때 등장하는 많은 어휘는 실제로는 학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접하지 않는 어휘는 모를 수밖에 없거나 부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의 어휘력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 기억 속에는 세 번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휘력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앞으로도 어휘력 사건은 또 일어날 겁니다. 아니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일 겁니다.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만 모두 보도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사건은 '복침 사건'입니다. 기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이죠. 한국전쟁이 남침인가 북침인가 묻는 질문에 북침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많았다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현대사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등 논란이 되었지만 사실은 역사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국어교육의 문제였고 어휘력의 문제였습니다. 북침을 북쪽에서 침략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그렇게 대답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북침이라는 말의 어휘구조가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북쪽이 아니라, 북쪽에서인지 방향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어휘 설명이 필요함을 깨달았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사흘이라는 말이 4일이 아니냐는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흘연휴라는데 왜 삼일만 쉬냐는 이야기였기에 저는 우스갯소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치인 거죠. 하루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어휘를 오해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사흘의 어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흘 나흘이라고 이야기해 주면 금방 이해하였을 겁니다. 또한 사흘이라는 말을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혼란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안 사용하면 깜빡깜빡 합니다.

세 번째 논란이 된 말은 최근에 일어난 심심한 사과 사건입니다. 심심한 사과가 매우 깊고 간절한 사과라는 뜻을 모르고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의미의 심심하다로 오해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심심하다의 또 다른 뜻인 조금 심겁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저는 심심한 사과라는 말이 그냥 형식적인 말투로 들렸을 가능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사과라는 말에서 진심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심심하다는 말이나 유감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과와 안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억지로 사과하는 말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어휘력 사건을 보면서 저는 교육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해나 실수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휘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사용빈도의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상호적입니다. 어휘력이 문제라고만 말하지 말고 진정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재단 스테디코리안

한글날 기념 시화전

그림과 글, 함께 쓰고 그리기 대회

한글을 배우고 사랑하는 전 세계 한글학교 학생들의 솜씨 자랑 한마당

주제 한글, 한글사랑에 대한 자유 주제

대상 전 세계 한글학교 학생

응모 분야 시와 그림

응모 방법 스테디코리안(<https://study.korean.net>) 내 게시판을 통해 응모

응모 양식 ·도화지 16절~2절, 캔버스 3호~20호 이내
·수채화, 크레파스, 색연필 등 자율선택

5~20MB / 해상도 3000픽셀 이상 / JPG, JPGE, PNG 형태(파일명 예시 : 이름_작품명.jpg)

일정

접수기간 | 2022.10.01~10.20

수상자 발표 | 2022.11.10 ~

시상 내용

상명	인원(명)	상품
대상	1	상장, 온라인 상품권 \$500
최우수상	3	상장, 온라인 상품권 \$300
우수상	5	상장, 온라인 상품권 \$100
장려상	10	상장, 온라인 상품권 \$50
가작	81	상장, 온라인 상품권 \$10
입선	00	상장
최다참여학교상	3개교	온라인 상품권 \$300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глава федерации керлинга России Дмитрий Свищев и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Подшивалов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развитии керлинг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бесплатно для детей от восьми лет.

Свои знания местному тренеру передает чемпионка России, мастер спорта и тренер по керлингу Екатерина Антонова. Вместе со старшим тренером сборной команды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Павлом Мишиным они дали перв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Мастер-класс был рассчитан на любой возраст. Для каждой новой группы наставники провели вводный инструктаж, вкратце рассказали правила и провели пробную игру.

Тренировк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на базе УТЦ "Восток" с 15:00 до 17:00 по понедельникам, средам и пятницам,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й минспорт.

유즈노사할린스크, 러시아에서 가장 근로임금이 높은 도시 상위권에 진입

유즈노사할린스크의 평균 근로임금이 월 11만 루블리를 넘어서는 가운데 사할린주 수도가 러시아 전 도시들 중 상위 3위를 차지했다고 러시아 국영통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실에 상황의 질적 평가 진단을 위해 러시아 연방 100개 대도시의 월평균 근로임금과 고정 소비품목

가격의 비율을 계산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근로임금 수준에 따른 도시별 순위가 나타났다.

도시별 월평균 근로임금은 (개인소득세 제외) 2022년 1월-6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식 통계를 토대로 집계됐고, 고정 소비품목 가격은 지역 통계를 인용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고임금 도시 순위들 중 3위를 차지했는데 지난해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는 근로임금 수준이 11% 이상 높아져 사할린 주민들의 월평균 임금이 11만 루블리로 집계된 가운데 모스크바가 그 뒤로 순위에 올랐다. 모스크바의 주민들은 월평균 12만8천3백 루블리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기록됐으나 물품 구입과 서비스 이용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보다 조금 적었다.

고정 소비품목의 가격과 근로임금 비율로 볼 때 모스크바는 4.82 대 4.95로 0.13 낮았다. 1위는 노비 우렌고이가 차지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월평균 12만9천 루블리를 받으나 고정 소비품목에 대한 임금 비율은 5.69이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6종의 생필품과 식품을 살 수 있다. 2위는 살레하드가 차지했는데 월평균 근로임금은 11만5천 루블리에 고정 소비품목 가격과의 비율은 5.07이다.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ошел в топ городов с самыми высокими зарплатами в России

Средняя ежемесячная зарпла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

ске превысила 110 тысяч рублей. Областная столица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среди все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сообщает РИА «Новости».

Для качественной оценки ситуации в данном вопрос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ссчитали соотношение средних зарплат в 100 крупнейших городах РФ и стоимости фиксированного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го набора. На основе этих данных был составлен рейтинг городов по уровню зарплат.

Средние зарплаты по городам (за вычетом НДФЛ) рассчитаны на основе офици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за январь-июнь 2022 года по крупным и средн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Фиксированны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й набор взят из региональной статисти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С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ровень зарплат в сто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 более, чем на 11%, и островитяне получают в среднем свыше 110 тысяч в месяц. Сразу з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дет Москва. Жители столицы России получают больше: 128,3 тысячи рублей, однако купить товаров и услуг могут немного меньше островитян. В соотношении зарплат и стоимости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товаров Москва уступает на 0,13 пункта: 4,82 против 4,95.

Лидером в рейтинге стал Новый Уренгой. Жители получают в среднем 129 тысяч рублей, а соотношение зарплат к фиксированному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у набору равняется 5,69. Так,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могут купить почти 6 наборов необходимых продуктов и товаров. Втор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занял Салехард: показатели равны 115 тысячам и 5,07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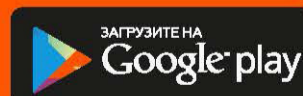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ru



в приложении еда.сах.ком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